

역대 최저 투표율을 나오나...내일까지 사전투표 '비상'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로 투표소 방문 꺼려 광주·전남 與 압승 판세 속 '홍행저조'도 한몫

4·15총선 사전투표가 10~11일 진행되는 가운데 최근 치러진 선거 중 가장 낮은 투표율을 보일 것이란 전망이 나오면서 선거당국이 비상이다.

지난 9일 선관위에 따르면 역대 선거에서 광주·전남의 사전투표율과 최종투표율은 전국 평균을 상회했다.

지난 2016년 4월13일 치러진 20대 총선에서 전남의 사전투표율은 전국에서 가장 높은 18.85%를 기록했고, 광주도 당시 전국 평균인 12.19%를 훌쩍 넘는 15.75%를 나타냈다.

2년뒤 치러진 2018년 지방선거

에서도 전남은 31.73%의 사전투표율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도 23.65%를 보였다. 당시 전국 평균 사전 투표율은 20.14%였다.

최종 투표율 또한 20대 총선이 전국 평균 58.0%를 기록한 가운데 광주는 61.6%, 전남은 전국 최고인 63.7%였다.

2018년 지방선거의 최종 투표율에서도 전남은 69.2%로 전국에서 가장 높았고, 광주는 59.2%로 전국 평균보다 1%포인트 낮았다.

하지만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선거만큼의 투표율을 장담할 수 없는 형국이다.

코로나19 비상상황이 지속되고

있고, 이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도 계속 진행중이다.

당장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아 병원에 입원 중이거나 자가격리 대상자들은 투표 참여 자체가 현재로서는 제한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 관계자는 "투표시간 마감 직전에 코로나19 관련자들을 함께 모아서 투표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관련 기관과 협의 중이다"고 설명했다.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개학도 연기되면서 사상 초유의 온라인 개학이 실시될 정도로 외부 접촉을 극도로 꺼리는 상황이다.

이 같은 분위기로 많은 후보들이 로고송이나 선거운동원 울동을 자제하고 거리유세를 삼가면서 선거 분위기는 더욱 가라앉은 형국이다.

더욱이 선거 결과도 예측불허일 경우 지지층 결집과 투표 독려가

각 후보와 정당을 중심으로 전개되나, 이번 선거의 경우 각종 여론조사 결과 광주·전남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들이 야당이나 무소속 후보들을 압도하는 것으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홍행이 저조한 실정이다.

이로 인해 각 정당과 후보들은 투표율 제고에 안간힘을 쏟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현재 나오는 여론조사 지지율이 실제 투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당 차원에서 피켓과 현수막, 홍보동영상 등을 활용해 사전투표를 독려하고 있다.

다른 야당과 후보들도 뒤처진 지지율을 만회하기 위해 지지자들을 대상으로 음성과 문자메시지, 카드뉴스로 투표 참여를 호소하고 있다.

전남도선관위 관계자는 "여론조사를 보면 70~80%가 투표에 참여



4.15총선 사전투표를 하루 앞둔 9일 광주 북구청 3층 용봉동 사전투표소에서 투표사무원 등이 기표소 설치와 코로나19 예방 방역활동을 펼치고 있다.

하겠다고 했지만 전반적인 분위기 상 투표율 하락이 우려된다"며 "선거일까지 각종 캠페인 등을 통해

투표참여 독려를 적극적으로 전개하겠다"고 말했다.

김윤호 기자

“씩씩이 막아달라”...천정배·박지원, ‘與바람’에 배수진

千 ‘3천배 유세’ 돌입 “호남대통령 만들 기회 날린다”

朴 “진짜 국회의원 필요...씨중자 살려줘야” 지지당부



호남 정치를 대표하는 6선 천정배, 4선 박지원 의원이 4·15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의 호남씩씩이는 막아달라"고 읊소했다.

천정배 광주 서구를 후보는 9일부터 '3000배 유세'에 돌입했다.

천 후보는 이날 오전 서구 풍암동 대주사거리 3000배 유세에 앞서 "더불어민주당의씩씩이만은 막고 이번 총선을 호남대통령을 만드는 출발점으로 만들자"며 지지를 호소했다.

각종 여론조사에서 양향자 민주당 후보에게 뒤져 7선 고지 등극에 빨간불이 켜진 그는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가장 잘 뒷



받침할 국회의원, 2년 뒤 대선에서 자유한국당(미래통합당)의 집권을 막는데 가장 큰 역할을 할 사람, 광주 발전과 서구 발전을 이룰 경력과 힘을 가진 사람, 호남의 지도자를 이룰 호남대통령을 만들 사람을 뽑아달라"고 했다.

특히 "호남대통령은 호남의 미래를 위한 것이다. 지금 우리 호남은 DJ 이후 25년 만에 호남대통령을 만들 절호의 기회를 맞았다"며 "씩씩이는 호남대통령 만들 기회마저 날려 버릴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지원 후보도 호남에서 부는 민주당의 거센 바람에 '진짜 국

회의원'이 필요하며 인물론으로 맞섰다.

전남 목포에서 김원이 민주당 후보와 접전을 벌이고 있는 그는 전날 밤 TV 연설에서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뒤를 잇는 4기 진보정권의 호남 정치를 위해서라도 박지원을 '씨중자'로 살려줘야 한다"고 호소했다.

그는 "목포를 위해 눈물도 삼키고, 비난과 수모도 견디며 일해본 사람, 대통령을 배출한 목포의 자존심을 지킬 수 있는 진짜 국회의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 국회의원 누구보다도 문재인 대통령을 지원해 왔고 문대통령이 성공하려면 박지원의 역할이 꼭 필요하다. 이낙연 대통령을 원하는 많은 분들도 제가 있어야 한다고 한다"면서 "하나 남은 저 박지원만큼은 4기 진보정권의 호남 정치를 위해서라도 '씨중자'로 살려줘야 하지 않겠느냐"고 지지를 당부했다.

박 후보는 "더 많은 국가예산과 국책사업을 가져와야 하고 전남대통령도 만들어야 하는 일을 조선 국회의원이 해 낼 수 있겠느냐"며 "박지원이 모든 것을 바쳐 일할 수 있도록 마지막 기회를 달라"고 말했다.

정의당 “민주당·더시민, 광주서 급조된 공약 발표” 비판

“호남유권자들 단지 표 찍어주는 거수기로 본 것”

정의당 광주시당 선거대책위원회는 9일 "더불어민주당과 더불어시민당이 광주전남합동선거대책위원회에서 급조된 공약을 발표하는 등 무성의한 준비를 했다"고 비판했다.

선대위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전날 민주당과 더시민은 광주에서 선대위를 개최하고 급조된 공약을 발표했다"며 "집권여당과 더시민의 무성의한 준비로 빈축을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발표한 공약 중 인공지능과 자동차, 문화, 에너지산업발전, 첨단과학기술 등의 공약은 산업발

전 공약과 거의 같은 이야기를 나뉘는 것"이라며 "세부방안이 없는 빈 공약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5·18민주화운동 정신을 헌법에 담겠다는 약속은 개헌을 해야 현실가능한 공약으로 민주당은 2018년 개헌시도가 좌절된 후 개헌에 대한 아무런 추가 계획이 없었다"며 "그런데 갑작스럽게 광주에서 개헌을 전제한 발언은 매우 준비없는 급조된 공약이나 다름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가트라우마치유센터 약속은 지난 대선때 민주당의

공약사항이었으나 예산배정에 대한 진지한 노력이 없어서 진전이 없던 내용"이라며 "양당의 대표가 광주까지 와서 약속할 만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다"고 강조했다.

특히 "결국 두 당의 대표가 새로운 국가, 사회, 민생 비전을 제시하고 공유하지도 못하면서 80년 군부의 총칼 앞에서도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죽음을 불사했던 호남유권자들을 단지 표 찍어주는 거수기로 본 것에 다름 아니다"고 비판 수위를 높였다.

선대위는 "민주당과 더시민의 급조되고 무성의한 공약발표에 대해 다시 한번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신봉우 기자

이낙연, 통합당 연이은 ‘막말’에 “미움의 정치 청산해야”

“지도자들부터 털어내야”

서울 종로에 출마한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9일 미래통합당 등에서 연이은 '막말' 논란이 불거지자 "미움의 정치"를 청산해야 한다. 지도자들부터 마음에서 미움을 털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이날 오전 페이스북

북 글을 통해 "막말과 사과가 여전히 반복된다"며 "막말은 미움에서 나온다"면서 이렇게 말했다.

그는 글에서 막말의 주체를 특정하지 않았으나, 최근 막말 논란에 당에서 제명을 당한 김대호 통합당 후보와 당 윤리위에 회부된 같은 당 차명진 후보의 문제를 겨냥한 것으로 풀이된다.

이 위원장은 "미움의 정치"를

청산하지 않는 한 막말은 계속된다"며 "지도자들부터 마음에서 미움을 털어내야 한다. 저부터 더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위원장은 종로 지역에서 맞붙은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를 향해 거듭 "미워하지 않겠다"는 메시지를 던져 정권심판론을 들고 나온 황 대표와 차별화하고 있다.

김윤호 기자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 062) 971-7400

광고 직통 224-5800

팩 스 222-5547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전국 꽃배달 서비스

60,000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